마라톤 회동 끝 극적 합의…준예산 피했다

새해 예산안 타결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
내년 지방선거 이후 9월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
누리과정 2조586억원 지원

웃음 찾은 3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내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예산안 처리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등 예산 관련 쟁점사항에 극적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은 이르면 5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안보다 다소 양보하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예산안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 합의내용은**=여야는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인력 증원 관련 합의사항에 대해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

◇**긴박했던 하루, 향후 일정은**=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하며 막바지 의견 조율을 했다. 이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 안건 관련 '합의문'을 잠시 꺼낸 뒤 다시 집어넣는 모습도 보여 여야 합의가 무르익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기됐다.

변곡점은 이날 오전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이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논의 회동에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에게 귤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다. 이때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얼굴이 동시에 밝아져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상당부분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마침내 이날 오후 5시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취재진에게도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 등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시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이르면 5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靑, 이르면 이번주 감사원장 인선

소병철·강영호 등 거론…새 인물 발탁 가능성도

청와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감사원장 지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감사원장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감사원장 인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막바지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에 신임 감사원장이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첫 감사원 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지명되는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의 선봉에 설 초대 원장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감사원장 후보자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김병철 전 감사위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돼 왔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거론됐던 인사들은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3자 구도' 압축

중립후보들 이번주 단일화…친박 vs 친홍 vs 중립후보 대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주영(5선), 조경태·한선교(4선) 의원 등 이른바 중립지대 후보들이 4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있을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친박(친박근혜)과 친홍(친홍준표), 중립지대 후보 등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번 주 안에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도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으로 함께했다. 이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명의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다"며 "중립후보 단일화를 위해 공정한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이들 의원은 한국당 책임당원들의 의사를 물어 단일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이주영, 조경태, 한선교 등 3명의 의원 간 토론회를 연 뒤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7일 오후까지 100% 당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즉 중립지대 단일후보는 7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공조'

양당 정책 연대,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 영향력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예산안 협상 타결 후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에서, 개헌은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여야가 내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향후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논의를 위해 조찬회동을 한 상태였다. 당시 두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공무원 증원 등을 놓고 입장이 갈려 예산안 처리 문제에서는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타결되면 본격적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구체적 내용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는데 예산안이나 일반 현안에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 묻혀서 우리 당 의원들의 걱정이 많다, 그래서 (우 원내대표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답하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정기국회 끝나는 시기에 예산안이 타결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해가자는 데 합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당이 정치개혁 분야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핵심 과제로 민주당도 비슷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양당 간 정책연대의 고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던 쟁점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편 논의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해 정부안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국민의당 내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쟁점에 대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정책연대를 이뤄냄에 따라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특위 진전 없이 난타전만

국민참여재판 조항 마련엔 공감대…자문위 내일 보고서 제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와 정당·선거 분야 집중토론을 했으나 개헌특위 자문위의 정부형태 관련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단일안이 아닌 병기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문위의 독립성을 위해 자문위의 정부형태 제시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초 보고서처럼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를 병기하고 각 제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지지를 실명으로 표기하면 자문위의 뜻이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리라고 보는데, 굳이 다수안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자문위의 결과를 갖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재차 "보고서를 번복하라는 것은 아니고, 애초 계획대로 병기하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자문위는 오는 6일 개헌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같은 날 개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형태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인다.

한편, 개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헌법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법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배제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정원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